

월간

공군



제550호 04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안내**
All New Space Challenge 2024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HH-32

08 **기획**
Adieu! Phantom



20 **Aero Detail**
주요국 공격헬기



14 **특집**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이야기



26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 IV. 샌디에이고 I



표 지 (앞) Space Challenge의 하늘(일병 문준혁)
표 지 (뒤) 꽃놀이를 하며 소풍을 떠난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4월 1일(통권 제550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미디어기획담당 소령 문현웅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03012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0	<p>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p>	46	<p>생각하는 그림 함께하는 시간의 힘</p>
		48	<p>우리 술 가이드 감홍로(甘紅露)</p>
38	<p>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고추: 세계를 사로잡은 매콤함</p>	50	<p>트렌드가 보인다 CES 2024 돌아보기 II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전통기업”</p>
40	<p>동서양 그랜드투어 『여민락(與民樂)』을 감상하며 서두르지 않는 삶, 느린 호흡으로 여유를 갖자</p>	52	<p>책 읽는 공군 이제 다시 손을 맞잡고 (제19전투비행단 보급대대 상병 우재환)</p>
42	<p>한 달, 한 권 『심플 플랜(Simple Plan)』 그 범죄는 왜 일어났을까?</p>	53	<p>공군인의 하루 생각이 많던 어느 날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상병 김기현)</p>
44	<p>영화로운 나날 『들퉈(Dune): 파트 2』 그 커다란 스크린이 가득 눈동자를 비출 때</p>	54	<p>토닥토닥 그곳의 하루는 여전히 길까?</p>
44		55	<p>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p>

ALL NEW SPACE CHALLENGE 2024

QR 코드 안내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 QR 코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QR 코드

국내 최대 항공우주축제인 Space Challenge 2024가 그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Space Challenge 2024는 1979년 모형항공기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공군 부대에서 개최되어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회 중심에서 체험·축제형으로 열리는 이번 Space Challenge 2024를 월간 『공군』 편집실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형항공기 대회?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다!

이번 Space Challenge 2024가 기존 행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대회 중심행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폼보드 전동비행기, 물로켓 등의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며 대회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Space Challenge는 올해부터 F-15K, F-16, FA-50, C-130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항공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에어쇼' 형태의 부대 개방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4월~9월에 걸쳐 전국 5개 권역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4월 20일(토) 공군 대구 기지를 시작으로 4월 27일(토) 공군 수원 기지, 5월 18일(토) 공군 원주 기지, 9월 7일(토) 공군 광주 기지, 9월 21일(토) 공군 충주 기지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예비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일은 다음날 일요일이다.

일 자	행사부대	일 자	행사부대
04.20.(토) 예비 04.21.(일)	공군 대구 기지	09.07.(토) 예비 09.08.(일)	공군 광주 기지
04.27.(토) 예비 04.28.(일)	공군 수원 기지	09.21.(토) 예비 09.22.(일)	공군 충주 기지
05.18.(토) 예비 05.19.(일)	공군 원주 기지	-	-

행사장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입장 가능하며, 푸드트럭과 먹거리, 기념품 판매 등을 제외한 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각 부대에 찾아오는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www.spacechallenge.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실시간으로 문의가 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상단의 QR 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All New Space Challenge 이모저모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채웠던 Space Challenge를 이제는 공군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채우게 된다. 행사를 찾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의 공연이 행사일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총 2회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전투 탐색구조 시범, 항공기 및 무장전시 등 공군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퇴역 예정인 F-4 팬텀 관련 특별 전시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5년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F-4 팬텀의 각종 사진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반기 개최 예정인 대구, 수원, 원주 행사에서는 실제 F-4 팬텀 전투기의 실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핸디 고무동력기 만들기 및 날리기, 에어로켓, 비행 시뮬레이터, 비행 슈팅 오락게임 등 프로그램과 에어 바운스,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있다. 또한, 가족·친구·연인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조종복 입기 체험, 공군 캐릭터 인형탈과 함께하는 포토존, 인생네컷 등의 부스들도 준비되어있다.

고무동력기 날리기와 수송기 탑승은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부대별로 행사 3주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무동력기 날리기는 부대별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무동력기 날리기 참가자는 미리 고무동력기를 준비하여 참여 가능하며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 중인 관객

가능하며 라이트 형제가 만든 세계 최초 비행기 플라이어호의 첫 비행시간인 12초 이상을 비행하게 되면 한정판으로 제작된 ‘Space Challenge 2024 기념 메달’을 받게 된다. 수송기 탑승 체험은 공군창군 75주년의 의미를 담아 75명을 무작위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들은 동반자 1명과 함께 수송기에 탑승하여 약 30분 동안 체험 비행을 하게 된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한 ‘All New Space Challenge 2024’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 펼쳐지는 Space Challenge 2024에 참여하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조심스레 권해본다. [☞](#)



블랙 이글스 특수 비행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

제45회

대한민국공군

SPACE CHALLENGE

2024



문의사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군 스페이스챌린지’를 검색

AEROSPACE CONFERENCE 2024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2024. 5. 8.(수) | 대전 컨벤션센터(DCC)



공동주최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행사주관



항공우주전투발전단
Air and Space Combat Development Wing

참가신청

2024. 4. 1.(월) ~ 4. 19.(금) / 신청시 소속, 계급(직책), 성명 입력
QR코드 또는 <https://m.site.naver.com/1k4T4> 링크로 신청,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ASC2024" 공지 확인

행사문의

920-5712(군), 042-552-5712(일반), selly0924@korea.kr(일반) ※ 사전 참가신청자 오찬 제공



참가신청



비행 중인 F-4E 항공기

Adieu! Phantom

1969년 F-4 팬텀(Phantom)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다. 당시 비행성능은 물론, 공대공·공대지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인 F-4 팬텀은 우리 공군의 주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왔다. F-4 팬텀은 2024년 6월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퇴역하며 이제는 역사 속에 그 발자취와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불멸의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의 하늘을 지켜준 F-4 팬텀과 안녕을 고하며 월간 『공군』은 F-4 팬텀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기획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F-4 팬텀 도입 시기 활약했던 이재우 예비역 소장을 만나고 故 박종권 예비역 소장의 글을 담아 그날의 감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중인 이재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F-4 팬텀 최초 도입 요원)

**F-4 팬텀 도입 요원
이재우 예비역 소장
인터뷰**

저는 공군사관학교 5기로 졸업하여 임관 이후 F-5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F-4 팬텀 도입 요원으로서 최초의 ‘팬텀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 대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제17전투비행단장 등 F-4 팬텀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수행하고 공군 본부 정보 참모부장, 군수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 대학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해왔습니다.

**당시 F-4 팬텀 도입의
배경**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1968),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1968)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1억 불의 군사원조를 하기로 하였고 이 재원으로 F-4 팬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F-4 팬텀 원조를 요청했을 때, 미국은 최신예 전투기인 팬텀을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F-5 전투기 추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F-4 팬텀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고 결국 F-4 팬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F-4 팬텀 도입의 의미

F-4 팬텀이 도입되기 이전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F-86, F-5 등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무장량, 연료 탑재량이 제한되어 작전반경이 다소 좁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군은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F-4E 항공기

하지만 F-4 팬텀은 기존의 전투기들에 비해 월등한 무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도입 이후 우리 공군은 공세적 공군으로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팬텀은 대구기지로 전개한 후에도 많은 연료가 남아있을 정도로 연료 탑재량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의 전력들과는 전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 차이가 월등했습니다. 그렇기에 팬텀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도입 당시 에피소드들

F-4 팬텀의 도입이 결정된 후 이를 운용할 조종사들이 필요해졌고 비행능력과 영어 실력 등을 고려해 적임 조종사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팬텀 조종사로 선발되었고 미국 애리조나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F-4 팬텀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교육 이후 처음 비행에 나설 때는 정말 긴장되었지만 비행이 시작되자 이렇게 좋은 전투기가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며 원하는 대로 기동이 가능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미군 교관과 도그파이트(Dogfight)* 훈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베테랑 조종사들로 이루어진 미군 교관들을 상대로 우리 훈련 조종사들은 약 50%에 가까운 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대지 폭격 훈련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높아 교관 조종사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여 그 실력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저는 당연히 여객기를 타고 귀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전투기를 타고 오라는 청와대의 명령으로 공중 급유를 받아 F-4 팬텀을 직접 비행하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초의 '팬텀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되었고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팬텀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 국민들의 성금으로 도입한 방위성금 헌납기 F-4D, 개량형인 F-4E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방위성금 헌납기

팬텀 퇴역에 대한 소회

F-4 팬텀이 퇴역한다고 하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팬텀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F-4 팬텀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떠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F-4 팬텀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가졌기에 F-16, F-15, F-35 등 현재 우리 공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최신 전투기들을 자신감있게 운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투기를 사용했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에 자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가능하다면 꼭 KF-21도 탑승해보고 싶습니다.

* 전투기들간의 전투로 격추전 또는 근접전이라고 부른다.

최초 도입 요원 故 박종권 예비역 소장 저

『하늘에 산다』

발췌글

팬텀기 40년의 애환 중

대한민국 공군이 가졌던 팬텀기는 참으로 대단한 전폭기였다. 이 전폭기를 인수하려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들의 각오와 결의는 글로써 표현하기 쉽지가 않다.

나는 팬텀기 인수 요원 16명의 한 사람으로 후방석 조종사에서 전방석 조종사로, 편대장, 시험비행 조종사, F-4E 비행대대장을 거쳐 비행단장까지 팬텀기와 수많은 애환을 함께했다.

최초 18대로 시작한 팬텀은 한때 150여 대까지 증강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팬텀기를 더 갖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 방위성금으로 F-4D를 사들였다. 그 후에는 개량형인 F-4E를 국방예산으로 추가 도입함으로써 우리 공군은 막강한 ‘팬텀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F-4E 운용대대인 제153전투비행대대의 초대 대대장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서는 그 비행단을 지휘하는 비행단장이 되었다. 팬텀기 최초 도입은 물론 운용을 확대해나가는 역사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 애환을 함께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팬텀기 조종사들은 1주일에 3일 정도 비상대기실에서 밤을 새웠다. 강력한 전략 자산인 팬텀기는 작전의 최일선에서 출동대기를 해야 했다. 지휘관과 참모들은 물론 임무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등 많은 임무 요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며 연중 휴무일도 없이 교대로 취약시간대에 초계비행*을 했다.



『하늘에 산다』 사진

새벽의 초계비행, 심야의 야간 비행, 해마다 승진 사격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군력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팬텀기에 정열을 다 바친 정비사들과 무장사들, 많은 지원 요원들이 오늘도 활주로를 떠난 전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사명감과 애국심을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 모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남긴 팬텀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때 팬텀의 지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최적의 비전을 가지고 용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면 회고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한 교훈으로써 팬텀은 또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지축을 뒤흔들 듯 폭음과 진동, 불기둥을 뿜어내며 대지를 떠나는 팬텀기의 특별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좁은 전투기 좌석 안에서 그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좁고 긴 활주로를 응시하며 용광로보다 더 붉은 불기둥을 품고 발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모습을 회상하면 지금도 감동과 전율로 가슴이 저린다. 

* 적의 공습으로부터 특정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팬텀아, 잘 가! 퀵리닝 이벤트

공모기간: '24. 05. 15 (수)까지

지난 50년간의 활약 후 퇴역하는 팬텀에게 멋진 옷을 입혀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50분께 스푸크 디자인 인회용 필름 카메라를 드립니다.



참여방법

도화지에 그려진 팬텀 스케치를 원하는대로 색칠한다.
완성된 작품을 촬영하거나 캡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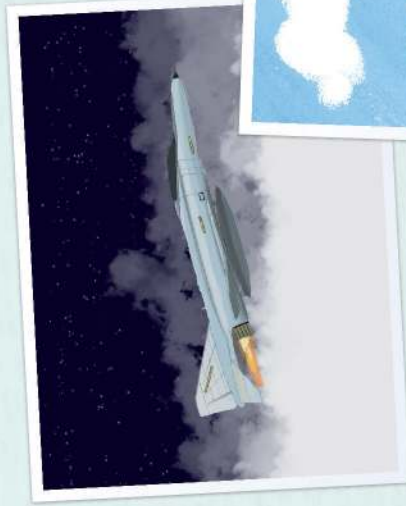
사진 파일*을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일간 「공군」 이메일(afzine@korea.kr)로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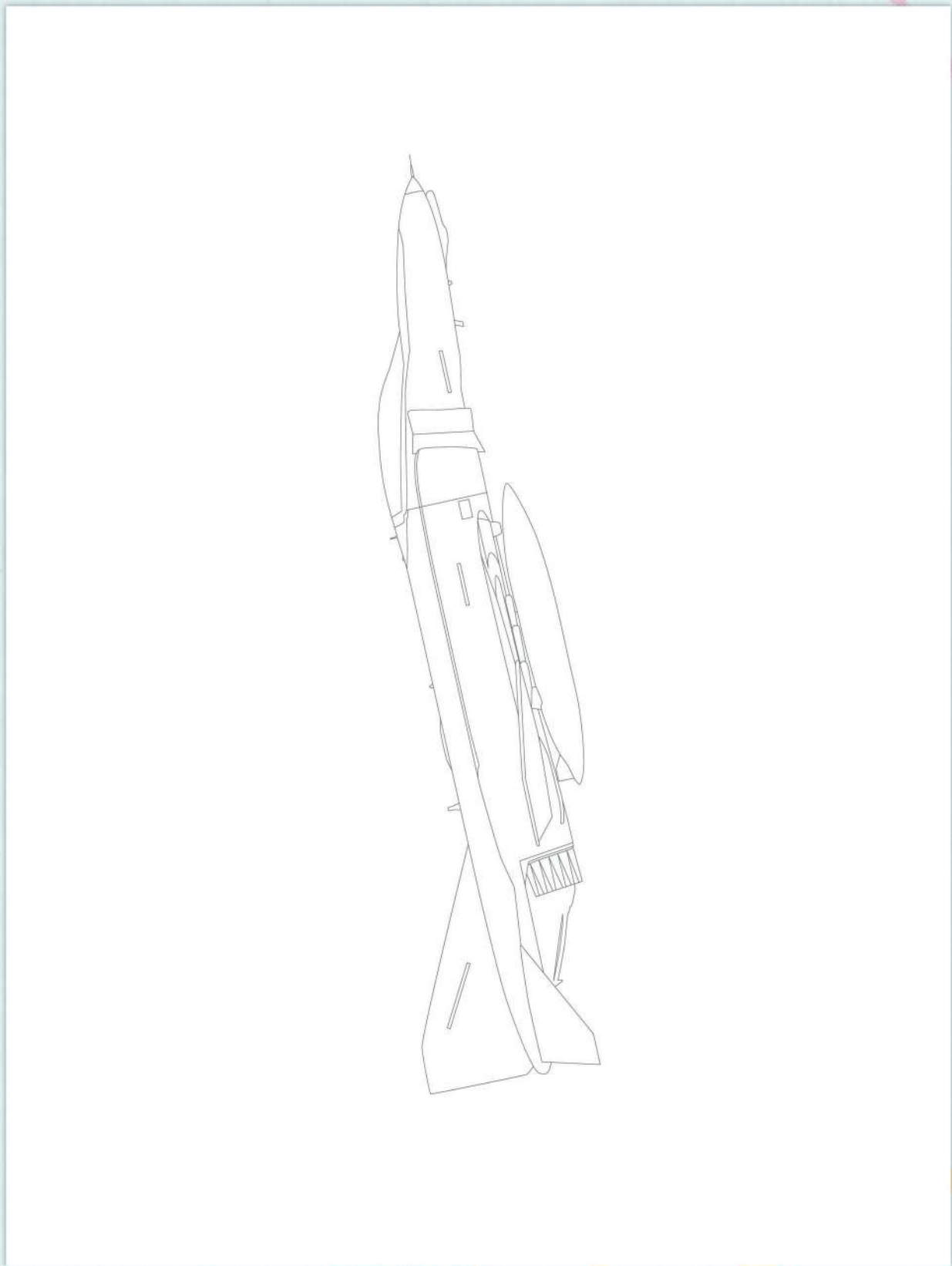
*jpg·png·pdf 파일

결과발표

공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수작은 6월호에 실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부족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종료 후 일괄 삭제 예정입니다.







거친 쇠붙이에 아름다운 영혼을 깃들게 한 사람 조각가 송영수

월간 『공군』에서 공군 장병들과 구독자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라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짝수달마다 여러분을 찾아보며 미술계의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공군사관학교의 성무탑을 제작한 용접 조각의 선구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철조 조각가로 불리는 송영수 작가입니다. 송영수 작가는 193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진학 후 스승인 김중영 작가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조각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송영수 작가는 젊은 나이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4회 연속 특선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나갔고, 이후 다양한 주제의 용접 조각 작품을 남기며 한국 용접 조각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가 용접 조각의 선구자이자 최초의 철조 조각가로 불리는 이유는 송영수 작가가 최초로 철조 조각 작품을 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먼저 철조 조각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존재했음에도 그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60년대 한국은 전쟁 이후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추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작가들은 불안이 남아있는 삶 속에서 사실적인 표현보단 자유로운 방식으로 본인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금속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용접 조각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용접 조각은 기존의 보편적인 제작 방식이었던 모델링(Modeling)¹⁾과 달리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해나가며 작품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추구했던 작가들에게

1) 주로 석고상이나 모델을 보고 점토 소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용접 조각은 좋은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많은 작가들은 동·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금속을 용접하며 작업을 이어갔지만 다수의 작가들은 이러한 유행에 편승한 듯, 일시적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실존적 태도란... 자기의 현실을 망각하고 유행을 좇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그러나 송영수 작가는 여타 다른 작가들과 달리 용접 조각을 꾸준하게 작업하며, 다양한 금속재료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연구하며 본인만의 용접 조각 세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특히, 철의 용접 조각만을 의미하는 ‘철조’를 꾸준히 시도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그가 당시 미술 풍조에 따라 용접 및 철조 조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작업으로 대한민국 현대 조각사에서 해당 분야를 형성하는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최초의 철조 조각가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송영수 작가에게도 본인이 주로 연구해온 공간과 선의 조형적 관계를 다루기에 용접 조각은 적합한 제작 방식이었고 본인의 작품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접 조각의 세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시대적인 유행에 따라 용접 조각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용접 조각 방식이 본인의 생각과 의도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여겨 용접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다른 작가들처럼 현대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법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송영수 작가는 최초의 철조 조각가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하나의 인간 활동이며 이것은 사람이 의식적 외적 표상을 사용하여 자기의 경험으로 얻은 제 감정을 타인에게 전하고 타인은 그 감정을 감수하고 경험함으로 성립된다”

송영수 작가는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요절했습니다. 비록 작가로서의 삶을 활짝 펼쳐 나갈 시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약 70점의 용접 조각들은 여전히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수 작가의 작품 중 그가 만든 최초의 용접 조각인 ‘효’와 공군사관학교의 중요한 상징물로 남아있는 ‘성무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수 작가의 첫 번째 용접 조각 작품인 ‘효’는 한자어로 ‘새벽’을 뜻하며 작가가 연구해왔던 인체의 형상과 구조를 중심으로 나무와 결합된 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기존 덩어리를 깎거나 다듬어서 작품을 제작하는 모델링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철 조각을 자르고 피는 과정을 통해 마치 선과 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효’



효(Bronze and wood, 136x20x26cm, 1957)



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개념으로서의 조각이 아니라 공간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용접 조각의 특징을 잘 살린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작가의 '추상'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효'는 조각 작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스키스(Esquisse)²⁾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송영수 작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드로잉, 스케치, 크로키와 같은 에스키스 작업을 통해 3차원의 '형상'을 '형태'로 구현하려고 하였으며, 본인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품 또한 그가 그린 드로잉을 보면, 그가 새의 형태와 인체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자 했는지 고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영수 작가의 은유적이고, 절제된 표현에 추상의 개념이 녹아든 이 작품은 실물로 보았을 때 유려함은 물론 긴장감까지 동시 느껴지게 합니다. 대칭 구조는 아니었지만 조각에 표현된 각각의 선들이 용접 조각 특유의 질감과 만나 연결점들을 팽팽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은은한 긴장감을 조성하였으며, 새의 모습은 그가 초기부터 다뤄왔던 인체의 볼륨감이 용접 조각 특유의 마티에르(Matière)³⁾와 만나 유려한 자태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소개할 두 번째 작품은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조형물인 '성무탑'입니다. '성무탑'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송영수 작가가 함께 힘과 뜻을 합쳐 만든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공군사관학교의 주요 상징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무탑'은 前 공군사관학교 부지인 보라매 공원에 있는 원작을 포함하여, 공군사관학교 청주 캠퍼스에 확대 건립된 것까지 총 두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송영수 작가는 '성무탑'에서 '성(星)'은 무한히 전개되는 우주의 공간성을 상징하며, '무(武)'는 정의에 의한 인간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마크 속에는 14개의 별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14개의 도(道)를 상징합니다. '성무탑'에서는 이를 스테인리스를 활용하여 뾰족한 14개의 원뿔 형태가 결합된 하나의 큰 별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탑의 골격인 콘크리트 탑신은 승리(Victory)를 나타내고자 V자형으로 제작했으며, 탑 중심의 원형은 우주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결합체임을 나타냅니다.


효(Bronze and wood, 136x20x26cm, 1957)

2)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작품을 위해 제작하는 초벌그림, 약화, 화고의 뜻
3) 표현된 대상 고유의 재질감을 의미

‘성무탑’은 공군사관학교와 송영수 작가가 제작한 당시 최초의 스테인리스 조각 작품이자 우주 주제의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미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송영수 작가 본인은 ‘성무탑’의 형상을 묻는 질문에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밝히며 자세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무탑’은 송영수 작가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의 작품 세계와 연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공군이 가진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어갈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마크

송영수 작가의 작품을 보면 작품의 미적인 감동도 있지만, 그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뇌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았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본인이 시도하는 작업에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송영수 작가가 남긴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한민국 현대 조각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의 형식과 장르에서 벗어나 추상의 세계를 융접 조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그의 예술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서울 성무탑



청주 성무탑



글쓴이 상병 정욱헌

前 Boutique Monaco Museum Curator, 前 PICKSGOOD Gallery Exhibition Manager, 前 Artslinker Curator. 입대 후 공군 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그래픽디자인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표 기획 전시로는 '램브란트-내면을 예칭하다 展, WHITE FUTURE-윤형재 展, Wave In Blue Island 展,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요? 展' 등이 있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HH-32

HH-32는 조종사를 구조하는 전투탐색구조(CSAR, Combat Search and Rescue) 임무용 회전익 항공기로, 2004년 도입되어 공군 6전대에서 운용 중이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제 항공기인 HH-32는 주·야간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해상 탐색구조와 산불진화, 전술공수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하고 있다. [☞](#)





길이 12.2 m

폭(너비) 1.68 m

높이 5.45 m

최대이륙중량 11,000 kg

최대속도 230 km/h

Aero Detail

주요국 공격헬기

AH-1 코브라 공격헬기

AH-1 코브라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공격헬기다. 원래는 기관총과 로켓탄을 사용하는 지역 제압용 공격헬기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대전차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베트남전 당시 처음 투입된 코브라는 AH-1G형 코브라였다. 지역 제압용 AH-1G에서 토우 미사일(Tube launched, Optically tracked, Wire guided Missile) 운용능력을 추가하고, 대전차 공격형으로 발전한 것이 널리 알려진 AH-1S형 코브라다. AH-1S형은 토우 미사일 등 무거워진 중량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출력과 동력계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H-1S형은 M65 망원조준 장치에 적외선 영상장치를 추가해 야간 작전능력 또한 향상시켰다. 이렇게 야간 작전능력까지 갖춘 AH-1S형 코브라를 C-NITE라고도 부른다.

코브라는 엔진을 한 개 탑재하는 육군용 단발형 코브라와 엔진을 두 개 탑재하는 해병대용 쌍발형 코브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쌍발형 중에서 가장 처음 배치된 것은 AH-1J형 씨 코브라(Sea Cobra)다. 씨 코브라에 탑재된 엔진에도 부족함을 느낀 美 해병대는 엔진을 강화하고, 동체를 늘린 AH-1T 씨 코브라 개량형도 운용했다.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하는 AH-1F 코브라 공격헬기



베트남전에 처음 투입된 코브라 초기형 AH-1G

육군형 코브라는 대전차 공격에 중점을 두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70mm 로켓을 주로 탑재하는 반면 해병대형 코브라는 좀 더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다. 이는 해병대형 코브라가 상륙작전에서 화력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병대형 코브라에는 토우나 70mm 로켓 외에도 127mm 로켓탄, 연료 기화폭탄, 기관포 포드, 공대공 미사일 등 상황에 맞게 폭넓은 무장이 추가된다.

美 육군은 코브라를 아파치로 대체했기 때문에 코브라를 개량할 필요성이 적었으나 美 해병대는 후속 공격헬기가 없어 코브라를 아파치 수준으로 운용해야 했다. 아파치 수준의 코브라로 가장 먼저 등장한 파생형은 1986년 3월에 등장한 AH-1W 슈퍼 코브라다. AH-1W 슈퍼 코브라는 아파치가 사용하는 T700 엔진을 쌍발로 탑재해 비행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무장도 토우 미사일 대신 아파치가 운용하는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했고,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하여 대 헬기 전투능력까지 갖췄다.

슈퍼 코브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 코브라 계열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라 할 수 있는 AH-1Z 바이퍼로 발전했다. AH-1Z는 기존 슈퍼 코브라의 설계를 95% 변경했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개량됐다.

AH-1Z 바이퍼는 슈퍼 코브라와 엔진이 같지만 항공전자 측면에서 특히 첨단화되었다. 통합형 전자장비가 탑재되고, 조종석에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등 시현 계통이 디지털화되었다. 표적획득 및 야시장비도 신형 아파치 수준의 센서가 적용됐다. 2엽 회전익이었던 기존의 날개도 4엽 복합재 회전익으로 개량되어 기동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을 통해 바이퍼는 초기의 코브라와 외형만 유사할 뿐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헬기가 되어버렸다. 육군용 단발 코브라는 후속기종인 아파치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지만 美 해병대는 바이퍼를 대체할 마땅한 후계 기종이 없기 때문에 바이퍼 계열은 향후에도 장기간 일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AH-56 샤이엔 공격헬기

현존하는 공격 헬리콥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중무장 공격 헬리콥터를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 없이 美 육군의 AH-64 아파치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1984년부터 美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아파치는 중무장·중장갑 헬기의 대명사이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선보이는 고성능 헬리콥터이다. 하지만 아파치가 배치되기 17년 전,



美 해병대에서 장기간 운용될 AH-1Z 바이퍼 공격헬기

이미 그보다도 뛰어난 고성능의 공격헬기가 비행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혁신적이면서도 독특한 설계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이 공격헬기의 이름은 AH-56 샤이엔이다. 샤이엔의 탄생 배경은 베트남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UH-1과 CH-47은 미 육군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수송전력이었지만 적의 공격에 취약해 손실률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헬기를 호위할 공격헬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조건에 따라 AAFSS(차기공중화력지원시스템)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시대를 앞서간 AH-56 샤이엔 공격헬기

AAFSS 사업은 수송 헬리콥터의 호위뿐만 아니라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CAS) 소요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겠다는 공격기 개념이었다. 즉, 미 육군이 향후에 신형 공격기를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근접항공지원을 전담했던 미 공군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AAFSS 사업은 처음부터 미 공군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

1963년 3월에 확정된 AAFSS 요구성능은 공중 정지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이면서 최고속도 407km/h(220kt)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항속거리는 3,886km(2,100nm), 무장탑재량 5.4t(12,000lb)이라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 정도의 항속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항속이 가능한 거리이며 팜에서 재급유를 한다면 태평양 횡단비행이나 미 본토 횡단까지 가능한 항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미 육군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구현된 주·야간 전천후 작전능력까지 요구했다.

AAFSS로 최종 채택된 AH-56 샤이엔의 공개는 196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AH-56의 데모비행을 본 기자들은 ‘샤이엔이 뱅크를 주고 급상승하는 모습은 마치 제2차대전 당시 전투기의 그것과 같았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임무지역에서 2시간 반 동안 체공하며 2,010발의 30mm 탄, 780발의 40mm 유탄에 더하여 6발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38발의 70mm 로켓을 동시에 쏟아내는 샤이엔의 성능은 놀라운 것이었다. 5.4t의 무장능력에 수평 최대속도 407km/h, 강하 비행 시 453km/h의 속도 역시 시대를 앞서간 성능이었다.

시제기의 성공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샤이엔은 필요 이상의 고성능과 복잡성,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되어 1972년 9월에 최종적으로 개발이 취소되었다. 동시대의 헬리콥터에 비해서 속도, 화력, 기동성 면에서 거의 2배 성능을 보여 미 육군이 필요로 했던 근접항공지원과 중심 타격에 최적인 기체였지만 단지 수송 헬리콥터를 호위하기에 너무 과분한 성능이었고, 특히 예산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여 양산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샤이엔의 실패를 계기로 미 육군은 더욱 간소화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AH-64 아파치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미 공군은 샤이엔보다 더욱 오래 체공하며 중무장할 수 있는 A-10 공격기를 개발하게 됐다. 샤이엔은 비록 양산에 이르지 못했지만 경이로운 성능으로 인해 공격 헬리콥터 역사에 전환점이 된 기체로 기억되고 있다.



AH-56은 성능이 매우 우수했지만 비용문제로 인해 개발이 취소되었다

AH-64 아파치 공격헬기

美 육군은 공격 헬리콥터의 가치에 주목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공격 헬기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AAFSS 사업으로 AH-56 샤이엔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공격 헬리콥터 개발이 시급해졌지만 샤이엔의 개발은 순탄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발된 AH-1 코브라는 전장에서 유용한 전력이었지만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美 육군은 코브라의 후계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첨단 공격헬리콥터(AAH) 계획이었다. 신형 헬기 개발에 도전한 회사는 록히드, 시코르스키 등 5개였다. 美 육군은 벨사와 휴즈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었고, 시제기를 만들어 경쟁시켰다. 벨사의 기체는 YAH-63, 휴즈사의 기체는 YAH-64로 명명됐다. 1976년 12월, 美 육군은 YAH-64가 비행 성능이 우수하며, 무장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신형 공격 헬리콥터로 최종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AH-64A 아파치

AH-64의 특징은 우수한 야간전투능력과 화력, 생존성으로 요약된다. 아파치가 야간에 원활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표적획득 장비와 야시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수에 위치한 이들 센서를 통해 아파치는 야간에도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표적을 탐지·식별할 수 있었다. 아파치의 무장탑재능력은 약 1.5t에 달한다. 레이저로 유도되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은 16발까지 탑재가

가능하고, 기본무장인 30mm 기관포 포탄은 최대 1,200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동체 아래에 장착된 30mm 기관포는 승무원의 헬멧형 조준기와 연동되어 헬멧 방향으로 기관포 포신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아파치는 생존성도 우수하다. 주요 부위는 적 화기로부터 피탄 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추락하더라도 승무원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복합탐색기가 적용된 합동공대지미사일(JAGM)을 사격하는 AH-64E

야간 작전에 능한 아파치도 약점이 있었다. 아파치의 눈인 적외선 센서가 악천후에서는 원거리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가 탑재됐다. 롱보우 레이더로 불리는 센서가 탑재된 아파치는 레이더 이름을 활용해 AH-64D/E 롱보우 아파치로 명명되었다. 롱보우 아파치는 레이더 외에 표적획득 장비와 야시장비도 신형인 애로 헤드로 교체해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파치가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것은 1989년 12월이었다. 당시 미국이 파나마에서 벌인 ‘저스트 코스’ 작전에서 아파치는 2km 밖에 위치한 빌딩의 특정 방을 야간에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아파치는 걸프전을 통해서 명성을 크게 드높였다. 걸프전 기간 중 아파치가 보인 가장 큰 성과는 개전 초기에 이라크 레이더 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파괴한 것이다. 美 육군 제101공정사단 제1헬기 여단 소속 AH-64A 8대는 사우디 국경 부근의 레이더 기지 2개를 기습해 다국적공군기가 안전하게 이라크 공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걸프전 기간 중 아파치는 총 288대가 전개해 86%의 임무



최신형 AH-64E 아파치 가디언

성공률을 보였다. 아파치는 전차와 차량 총 1,000대 이상을 파괴하였으며 불과 2대의 아파치에게 이라크 육군 보병 1개 대대가 투항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 육군 아파치는 후속기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파치는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리콥터로 운용될 전망이다.

Ka-50/52 공격헬기

Ka-50 호킴은 러시아의 신형 공격헬기다. 1980년대에 들어서 러시아는 무장헬기로 명성이 높았던 Mi-24 하인드의 후속 헬기를 필요로 했다. 차세대 공격헬기를 위한 경쟁에서 카모프 사의 Ka-50은 밀 사의 Mi-28 하복 헬기를 물리치고 승리해 1987년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공격헬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무장운용과 기체 조종을 맡는다. 하지만 호킴은 조종사 한 명이 무장운용과 조종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군용 헬기 제작에 익숙한 카모프 사는 밀 사와 경쟁하기 위해 혁신적인 개념으로 호킴을 설계했는데 단좌 조종석과 같은 효율적인 설계가 Mi-28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호킴은 2중 동축 반전 방식의 회전익기다. 일반적인 헬기는 주 로터 1개와 꼬리 로터 1개로 구성되는데 반해 호킴은 꼬리 로터 없이 주 로터 2개가 하나의 축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동축 반전 방식의 헬기는 꼬리 로터가 없어 동력 손실이 없고, 기동성이 우수한 것이 장

점이다. 호킴은 최대 3.5G의 하중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최대속도 300km/h, 전투행동반경 460km, 항속거리는 1,200km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엔진은 2,200마력 TV3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사용한다.



러시아 공군의 Ka-50 호킴 공격헬기

호킴은 기본무장으로 소형 날개에 AT-16 비키르 대전차 미사일 16발과 로켓 포드 2기를 탑재할 수 있다. 비키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km에 이른다. 이 정도의 거리는 대부분의 야전 방공 무기 사정거리보다 긴 것이어서 호킴은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사격통제 시스템은 전자광학, 열 영상,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킴은 고정무장으로 동체 우측 하부에 2A42 30mm 기관포를 탑재한다. 2A42 기관포는 BMP-2 장갑차에 탑재된 것과 같은 것이며, 호킴에는 500발의 기관 포탄이 탑재된다. 고정식 30mm 기관포와 AA-11 아처 공대공 미

사일을 운용할 경우 호컴은 우수한 헬기 간 공대공 전투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호컴의 연료탱크, 동력계통, 전자장비는 생존성이 고려되었으며, 조종계통과 유압장비도 고장과 피탄에 대비해 2중으로 설계됐다. 조종석은 러시아의 23mm탄, 미군의 20mm탄에도 견디도록 2중으로 장갑이 설치됐다.


특이하게도 호컴은 사출좌석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헬기는 조종석 위로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 공중에서 조종석이 사출되면 로터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 호컴은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로터 회전날개 연결부에 폭약을 설치해 유사시 로터를 분리시키도록 만들어졌다.

단좌형으로 설계된 Ka-50 호컴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Ka-52로도 파생되었다. Ka-52 앨리게이터 공격헬기는 1994년 9월에 개최된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Ka-52는 Ka-50을 기본으로 정찰과 전장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조종석과 전방 동체

는 복좌형으로 재설계했지만, 기체구조와 동력계통은 기존 Ka-50과 85% 동일하다. 앨리게이터 조종석도 호컴과 마찬가지로 사출좌석이 적용됐고, 다만 좌석이 2개인 만큼 양쪽 좌석이 동시에 사출되도록 일부 개조가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육군 항공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Ka-52

현재 러시아는 단좌형인 Ka-50보다 운용이 용이한 복좌형 Ka-52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육군 항공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Ka-50 단좌형을 복좌화 시킨 Ka-52 앨리게이터 공격헬기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미국 IV. 샌디에이고 I

샌디에이고(San Diego)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이다. 쾌적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안정된 치안으로 마이애미와 더불어 연금생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이다. 이에 대한 샌디에이고 시민들의 자부심은 매우 높으며, 샌디에이고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America’s finest city)”라는 모토를 천명한다. 또한, 이곳에는 美 해군·해병

대 및 해안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16개의 군사시설이 있다. 대규모 병영시설과 미군 장병들은 도시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을 이룬다. 항공모함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해병대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역사공원, 서부개척시대박물관 등 군사역사자료를 보여주는 관광명소들이 있는 샌디에이고는 다양한 볼거리로 넘치는 도시이다.



샌디에이고 시내와 바다 전경

美 해군·해병대 발전기지 태평양의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는 환상적인 날씨,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으로 미군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이기도 하다. 시내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코로나도섬의 해군기지에는 약 2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유람선을 타고 근해로 나가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항공모함과 대형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해군 부두를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군함들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모습은 샌디에이고가 해군 발전기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이 도시 북부의 美 해병대 기지에는 해병대박물관이 있으며, 자체 비행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병영부지는 광대하다. 시티투어버스(City tour bus)가 이 기지 주변을 지나갈 때는 해병대 소개와 더불어 씩씩하고 경쾌한 군가가 버스 안에서 방송으로 흘러나온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군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력의 상징 미드웨이 항공모함 박물관

샌디에이고 항공모함 박물관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항공모함 갑판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특히 가족 단위로 온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1945년에 취역한 미드웨이 항공모함은 베트남전, 걸프전에 참전한 후 1992년에 퇴역했다. 현역에서 물러난 이 선박을 미국 대기업이 구매하여 미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박물관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길이 304m, 높이 37m, 배수량 64,000t의 거대한 항공모함 박물관 입구를 통과하면 대형 공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노란색 모자의 안내인들은 대부분 美 해군·해병대 퇴역 간부들이다. 항공모함이나 전시 항공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참전경험담도 들려주는 이들은 전원 자원봉사자들이다.



샌디에이고 항공모함 박물관 전경



미드웨이 항공모함 취역식 전경

애국심 함양의 체험 학습장이 된 항공모함 박물관

단과대학 학생 수와 비슷한 4,000여 명의 승조원들이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이 항공모함을 운용했다. 항공모함 상단 활주로에는 최신 군용기가, 하단 격납고에는 태평양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다. 격납고 전시실 한편에는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미드웨이 해전(1942년 6월 4일~6일) 소개영화가 상영된다. 영화관 입장 전에 전직 파일럿 출신의 열정적인 전쟁역사 설명은 현장학습 학생들을 타임머신에 태워 80여 년 전의 전쟁터로 끌고 들어간다. 태평양 전쟁 기록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전쟁영웅 니미츠 제독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온다. 가상현실을 적용한 최신 기법으로 그 영웅을 우리들 앞에 다시 재생시킨 것이다. 니미츠 제독은 직접 전쟁 배경, 진주만 기습 등을 실감나게 설명한다. 이어서 일본군과의 치열한 공중전과 해상전투를 보여주는 미드웨이 해전이 스크린에 펼

쳐진다. 추락한 美 조종사의 가족사진이 바다 위에 떠다니고, 아 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손편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뿔어오르는 뜨거운 애국심을 느낀 학생들의 다음 관람코스는 항공모함 활주로 였다.



비행갑판에 전시된 최신항공기



활주로 하단 격납고 전시실 전경

첨단과학기술력 소개와 승조원 선상생활 전시관

항공모함 활주로 갑판에는 美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최신의 군용기들이 줄지어 있다. 특히 함재기의 이륙과 착함 과정을 영상을 통해 파일럿 출신 예비역들이 설명해준다. 영상 속에서 E-2 공중조기경보기(Hawkeye)가 이륙에 실패하여 활주로 끝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Oh, My God!”이라는 관람객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잠시 후, 바다에 빠진 줄 알았던 항공기가 흡사 나비처럼 기우뚱거리며 하늘로 다시 날아오른다. 노련한 조종사가 추락 직전 양력을 회복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활주위에 전시된 E-2 공중조기경보기



미드웨이 해전을 설명하는 예비역 해군 파일럿

이 항공모함 갑판 아래 격납고에서 F-18 호넷 전투기 2대를 불과 20초 만에 활주로 위로 들어 올리는 승강기를 3개나 가졌다. 순식간에 6대의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최신 항모에는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이다. 항공모함 내부는 작은 아파트촌과 비슷했다. 대형식당, 교회, 세탁공장, 장교 숙소, 병사생활관, 종합상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심지어 으스스한 격실에는 임시 감옥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수병이 수갑을 차고 군사경찰 부사관의 취조를 받고 있다. 수백 개의 격실을 가진 항공모함은 함내에서도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을 잡기 위한 군사경찰이 항모에 상주한다는 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항공모함 내의 수병식당 전경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 동상과 참전용사 환영 방송

1945년 8월 15일 뉴욕 맨해튼에서 촬영된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상징하는 멋진 작품이다. 수병의 검은 군복과 간호사의 하얀 옷이 주는 강렬한 대비와 두 사람의 열정적인 키스 모습이 종전의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항공모함 박물관 옆의 역사공원에는 바로 이 사진을 재현한 대형 동상이 있다. 연인들이 나뭇대로 이 동상 흉내를 내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공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 귀환 장병 조형물도 있다. 1945년 당시 미국 유명 개그맨의 익살스러운 대화가 웃음소리와 함께 방송으로 흘러나온다. 철모를 벗어든 병사, 목발의 상이군인, 공장노동자들이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다. 전쟁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얼굴에서 후회하는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끊임없이 과거 전쟁을 되새기며,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전쟁터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게 느껴졌고 이러한 정신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것 같았다. [☞](#)



항공모함 박물관 옆의 역사공원 전경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싱가포르·필리핀 에어쇼 참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Black Eagles)는 2월 20일(화)~25일(일)과 3월 3일(일)~5일(화), 각각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과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에서 펼쳐진 싱가포르와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했다. 세계 3대 에어쇼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와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필리핀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는 뛰어난 기동을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대한민국 공군,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 실시

공군은 3월 8일(금), 제10전투비행단에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여주기 위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실시했다.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는 공군이 가진 압도적인 응징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십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지상을 활주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F-16, FA-50, F-5, F-35A 등 33대의 전투기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퇴역을 앞둔 F-4E 팬텀이 참여한 마지막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로 그 의미를 더했다.





오산기지 '24 FS 연습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10일(일) 오산기지 2024년 FS (Freedom Shield) 연습 현장을 방문해 전쟁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토의를 하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의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전쟁 지속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후속 지원을 책임지는 공군본부가 전쟁 지속능력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6일(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지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자랑스럽게 임관한 166명(외국군수탁생도 7명 제외)의 신임 장교들을 축하하고, 무운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번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강전영 소위(대통령상), 김가연 소위(국무총리상), 박문호 소위(국방부 장관상) 등 신임 소위들이 우등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 김승겸 소위 등 다양한 미담을 가진 졸업생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항공우주의료원 비상 진료대책 준비상태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2월 28일(수) 항공우주의료원을 방문해 대국민 의료지원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요원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금 더 힘을 내어 대국민 의료지원에 이바지 해달라.”고 말했다.



공중전투사령부

한미 연합 공군,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실시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은 3월 11일(월)~15일(금),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F-16, FA-50, F-4E와 미 7공군 소속 A-10, F-16 등 40여 대의 전투기가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 공군이 가진 정밀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기동정찰사령부

함상 이·착함 자격 유지 및 획득 훈련

공군기동정찰사령부는 2월 28일(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조종사들의 해상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함상 이·착함 자격 유지 및 획득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요원들이 참여하여 함상 이·착함뿐만 아니라 해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1전투비행단

동호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실시

제1전투비행단은 3월 7일(목),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고창군 해리면에 위치한 동호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환경정화에 참여한 1전비 장병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버려진 폐비닐, 유리병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KC-330·A-10 최초 상호교류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대대는 3월 14일(목), 美 공군 제25전투비행대대와 최초로 KC-330·A-10 상호교류를 시작했다. 261대대는 美 51전투비행단 제25전투비행대대 요원들을 초대하여 공중 급유 작전 전술토의, 기지 견학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실시하며 상호이해 증진과 연합 공중급유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성사랑도서관 Culture Day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들은 2월 15일(목)과 22일(목) 자발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성사랑도서관 Culture Day' 행사를 운영했다. 김태완 원사를 중심으로 한 참여 장병들은 '인생 버킷리스트 만들기', '사진을 통한 예술가 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상호 소통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39정찰비행단

조종사 비상처치 경연대회

제39정찰비행단은 2월 21일(수) 조종사들의 비상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조종사 비상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을 부여하여 조종사들이 해당 상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평가했다. 대회를 운영하며 39비 조종사들은 자연스럽게 비상 상황 대응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다.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고추: 세계를 사로잡은 매콤함



이인이 칼럼니스트

'외식관광뉴스' 대표이자 '한국외식관광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식문화와 여행 명소를 경험하며 얻은 지식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55선』(공저)를 출간했다.

고추는 남미가 원산지인 작은 관목의 열매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향신료이다.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데 이는 고추가 효과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고추를 소화할 수 없는 조류의 경우 캡사이신을 느끼는 수용체가 없어 고추의 매운맛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씨를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포유류의 경우 고추를 소화할 수 있어 번식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를 퇴치하여 번식에서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해 고추는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인간은 고추의 무기인 매운맛에 오히려 열광하며 더 매운맛을 찾아 고추를 개량하고 있다.

현재 고추의 전 세계 생산량과 소비량은 향신료의 대표인 후추의 20배에 달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추가 재배되고 있다. 매운 마라탕의 고장인 중국 쓰촨성에서도 고추는 주된 향신료이며 고추의 변형으로 헝가리는 파프리카를, 스페인에서는 피망을 주로 사용한다. 피망과 파프리카는 모두 고추를 개량해 만든 것이다. 고추에서 과육을 키우고 매운맛을 줄인 것이 피망이고, 피망에서 단맛을 높이고 매운맛을 없앤 것이 파프리카이다. 이렇듯 고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사를 좋아한다면 후추에 대한 글을 자주 접할 것이다. 후추는 향신료의 왕으로, 신항로 개척 시대의 원동력이었다. 후추 덕분에 고추도 남미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고추의 영어명은 hot pepper이다. hot pepper는 콜럼버스가 서양에 알린 단어이다. 고추와 후추는 모양과 맛에서 차이가 큰데 왜 pepper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여기에는 콜럼버스의 고뇌가 담겨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얹혀있다. 콜럼버스는 값비싼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향로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인도 대신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인디언, 카리브해의 섬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다.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후원으로 탐험을 떠날 수 있었던 콜럼버스는 스페인에 돌아가 인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인이 인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어느 정도 희석하며 후추 대신에 가져온 고추를 pepper, 즉 후추의 일종으로 명명하여 본국에 보고했다는 설이 있다. 콜럼버스에게 아메리카는 인도여야 했고, 고추는 후추여야 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1인당 고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전래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오늘날 화학무기처럼 고춧가루를 무기로 썼다고 한다. 실학자 이규경은 ‘일본군들이 고추를 태운 매운 연기를 날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진격하거나, 기습작전의 하나로 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임진왜란 중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방에는 일본군이 오래 주둔했는데, 이때 일본군에게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 중 하나가 고추였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이수광이 편찬한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서 고추에 대하여 ‘남만(南蠻)의 풀로 독이 있으며 일본에서 처음 전파되어 왜 개자(倭芥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맛이 맵고 독하여 많이 먹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후 요리책에도 고추를 활용한 요리는 보이지 않다가 1740년에 이르러서야 이표의 요리책 『수문사설』에서 고춧가루와 찹쌀, 새우, 조개 등을 넣어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고추를 활용한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고춧가루를 버무린 배추김치는 19세기 말에 등장한다. 고추가 전래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무로 만든 동치미나 소금에 절인 짬지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그러다 전라도 지역부터 고춧가루에 버무린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전라도는 다른 지역보다 덥고 습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 음식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고추가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을 보고 김치에 소금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를 듬뿍 쳐서 먹게 된 것이다.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의 강렬한 맛을 본 사람들은 곧 고춧가루를 김치와 각종 음식에 활용하게 되었다.

고추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리 팁이다. 고춧가루로 양념을 만들면 풋내를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고춧가루로 만들 때, 고추가 건조되면서 과벽세포들이 농축되어 나무나 흙냄새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양념을 만들어 냉장고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숙성하면 풋내가 사라진다. 숙성되면서 자신의 효소에 의해 분자구조가 작게 분해되어 다른 향미로 바뀌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후추이길 바랐던 고추이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향신료가 되었다. 고추 속에 담긴 역사를 떠올리며 우리 식탁 위에 있는 맛있게 매운맛을 느껴보길 바란다. 



동서양 그랜드투어

「여민락(與民樂)」을 감상하며 서두르지 않는 삶, 느린 호흡으로 여유를 갖자



이윤주(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고, 한양대, 영남대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다. 국악교육, 공연기획, 학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세종의 소리 여민동락」을 직접 기획하였다. 평상시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관람객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객석에서 치유한다.



국립국악원 연주 QR 코드

한국인 중에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글을 창제한 임금, 조선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 그리고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경영자, 언어학자, 군사전략가, 과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그래서 많은 이들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세종대왕을 꼽는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한글을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미국 LA 시티 칼리지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볼 때, 세종대왕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인지도가 높은 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이자 작곡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세종은 공자의 예악(禮樂) 사상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예’로 질서를 잡고 ‘음악’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기에 세종이 꼭 해야 하는 일은 음악의 기준 음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는 중국의 음고(音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박연(1378~1458)과 함께 음의 기준이 되는 율관¹⁾을 제작하여 우리의 음을 만들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편경²⁾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음악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우리 음악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세종대왕이 뛰어난 음악가임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편경 제작 시연회에서 16개의 편경을 차례로 연주하자 세종은 “이척³⁾음이 조금 높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편경을 만들기 위해 경돌에



편경(출처: 국립국악원)

1) 대나무로 만든 일종의 튜너기로 율관 길이에 따라 부피, 무게 등 도량형의 기준이 됨
2) 7자 모양의 타악기로 돌의 크기는 모두 같고 두께로 음높이를 조절하며, 두꺼울수록 강성이 높아 고음을 냄
3) 12울 중 아홉 번째 음

그러놓은 먹줄이 남아있었고, 미처 다 갈지 못한 먹줄을 갈아내자 음높이가 맞았다고 한다. 보통 사람은 들어도 알 수 없는 미세한 음의 차이, 서양 반음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차이를 구분한 것을 보면 세종은 절대음감까지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은 우물에 비친 달에서 착안해 동양 최초로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정간보’를 창제했다. 우물정 자(井) 모양의 정간 안에 음이름, 즉 율명(律名)을 표기하는 정간보는 한 칸이 한 박자인 악보로 음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선 기보법이 17세기 이후에 생겨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15세기 중엽에 고안된 정간 기보법은 당시로써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간 기보법을 토대로 「여민락」을 비롯한 국가 의례에 쓰이는 다양한 음악들이 악보로 기록될 수 있었기에 그 음악이 지금까지도 단절 없이 전해질 수 있었다.




정간보로 기보한 「세종실록악보」
(출처: 규장각)



정간보로 기보한 「여민락보」
(출처: 규장각)

세종은 중국의 아악, 당악에 우리나라의 향악을 더한 「정대업」, 「보태평」과 함께 「여민락」이 포함된 「봉래의」 등을 만들었는데 『세종실록』에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악(新樂)의 절주(節奏)⁴⁾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음악을 직접 작곡하는 세종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민락(與民樂)」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 담긴 음악으로 용비어천가 중 1, 2, 3, 4장과 마지막 125장을 관현악 반주에 얹어서 부르던 곡이다. 조선을 개국한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이를 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음악에 담겨있으며, 음악 장르로는 정악에 속한다. 궁중과 선비사회에서 향유하던 바른 음악 정악(正樂)은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예의와 엄숙함, 충성과 효,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여 장중하다. 따라서 대체로 속도가 느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 ‘하나-둘-셋’ 즉, 세 개가 한 박을 이루어 그 자체로 한가로움을 갖는다.

570여 년 전 「여민락」이 만들어졌던 과거를 상상하며 감상해보자. 손에 든 휴대폰으로 잠깐의 휴식도 허락지 않는 일상 속에서 세종대왕이 예악 사상과 애민정신으로 만들었던 「여민락」을 들으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권태로움과 행복을,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찾아본다면 잠시라도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편경을 연주하는 당악계통 관악기 중심의 「해령」 (출처: 국립국악원)



편경을 연주하지 않는 향악계통 현악기 중심의 「여민락」 (출처: 국립국악원)

4)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규칙적인 음의 흐름

한 달, 한 권

『심플 플랜(Simple Plan)』, 그 범 죄는 왜 일어났을까?



윤영천 작가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독자/기획자/편집자/저자. 1999년부터 미스터리(mystery·추리) 소설을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하우미스터리(howmystery.com)를 만들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셜록 홈즈 걸작선’, ‘브라운 신부 시리즈’, ‘레이먼드 찬들러 전집’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 ‘엘러리 퀸 컬렉션’을 비롯해 수십 종의 미스터리를 기획·편집했다. 저서로는 『탐정사전』, 『미스터리 가이드북』 등이 있다.

미스터리 소설의 특징을 꼽자면 역시, 범 죄를 소재로 한다는 점입니다. SF, 판타지, 호러, 로맨스, 무협 등 다양한 장르에서 범 죄를 다루지만, 오로지 범 죄만을 이야기하는 장르는 미스터리뿐이죠.

재미있는 건, 미스터리 소설 속 범 죄는 사회적 범 죄를 의미합니다. 범 죄자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며, 탐정이나 경찰은 사적 제재가 아닌 사법제도를 통해 범 죄자를 심판하죠. 미스터리 장르를 흔히 ‘크라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종교적 범 죄를 뜻하는 신(Sin)이 아니라, 형사 범 죄를 뜻하는 크라임(Crime)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 범 죄를 다루기에 미스터리 장르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작품을 읽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리 소설 속에서 불거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은 ‘who?’입니다. ‘범 인은 누구지?’, ‘누가 죽였지?’라는 질문이죠. 미스터리 소설은 전통적으로 ‘범 인의 의외성’에 그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뜻밖의 범 인이 반전을 만드는 스타일이죠. 두 번째 질문은 ‘how?’입니다. ‘어떻게?’라는 의미로, 수법을 뜻합니다. 밀실을 테마로 한 작품을 떠올려 보세요. 뜻밖의 범 인보다 불가능한 밀실을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who?’와 ‘how?’. ‘어떤 수법으로 누가 그 범 죄를 저질렀는가?’. 이 두 질문은 상당히 오랫동안 미스터리 장르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질문이 필요해졌죠. 바로 ‘why?’라는 질문입니다.

‘why?’는 ‘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지?’ 즉, 범죄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이나 범인의 동기를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요즘 미스터리는 ‘범인’이나 ‘수법’보다 ‘동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개해 드리려는 작품은 스콧 스미스의 데뷔작이자 밀리언 셀러인 『심플 플랜(Simple Plan)』(1993)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동명 영화 「심플 플랜」(1999)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이리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 『심플 플랜(Simple Plan)』이 현대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why?’라는 질문을 대표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눈 덮인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행크와 제이콥 형제의 부모님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빛에 못 이긴 자살로 추정되는 비참한 사고였죠. 자질구레한 물건과 함께 부모님이 남긴 유언은 기일에 형제가 함께 무덤을 찾아 달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직장과 아내, 작지만 소중한 미래가 있는 행크와는 달리 형 제이콥은 술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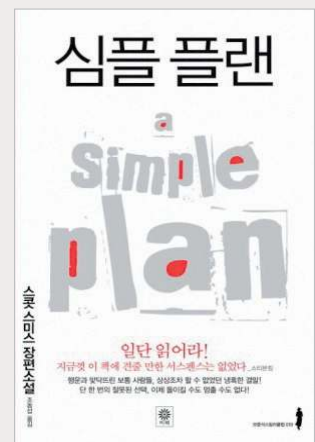
두 형제와 자주 어울리는 백수 친구 루까지 이렇게 셋은, 뒤늦게 무덤에 방문하던 중 눈 덮인 숲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를 발견합니다.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의 시체와 함께 현금 440만 달러가 있었죠. 너무나 큰 행운 앞에 세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작은 회사의 회계부장이었던 행크는 6개월 동안 돈을 보관한 뒤 별일 없으면 삼등분하자는 ‘간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작품 제목처럼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너무나 쉽게 부서집니다. 사소한 의심, 불행한 사고로 비밀은 새어 나오고, 각각의 불신과 탐욕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행크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결국 파국으로 향하게 되죠.

행크의 1인칭 회상으로 쓰인 『심플 플랜(Simple Plan)』은 사소한 계기가 지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콧 스미스는 영리하게 행크의 심리를 밑바닥까지 휘젓고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하며 행운을 지키려 한 행크는 결국 너무 멀리 가게 됩니다. 독자는 행크의 필사적인 독백을 따라가다가, 지나쳐 온 거리를 되돌아보고 아연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범인’에서 ‘수법’을 지나 ‘동기’로. 미스터리 소설 속 무게중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탐정소설’에서 ‘범죄소설’로 변모한 미스터리의 역사적 흐름과도 정확히 일치하죠. ‘who?’와 ‘how?’ 그리고 ‘why?’ 이 세 질문을 머릿속에 새겨 두면, 얼핏 흐릿해 보이는 미스터리 장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탐정 놀이와 추리게임에 지치신 분, 논리적이고 딱딱한 미스터리가 취향에 맞지 않는 분이라면 『심플 플랜(Simple Plan)』은 아마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겁니다. 



『간단한 계획』 스콧 스미스 지음 | 박재민 옮김

영화로운 나날

「둔(Dune): 파트 2」 그 커다란 스크린 가득 눈동자를 비출 때



박지수 영화전문블로거

8살엔 영화관을, 20살엔 영화제를 처음 가봤습니다. 25살엔 원고료를, 30살엔 출연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오프닝과 「헤어질 결심」의 엔딩을, 「기생충」의 이미지와 「원스」의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한 영화를 백 명이 본다면 백 편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작품을 잊지 않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제이스의 피노키오'를 운영하며 계속 글을 씁니다.

영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취미 생활이자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여전히 유효한 문화예술입니다. 하지만 영화관은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OTT 플랫폼이 발전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는 일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반드시 극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2021년 개봉한 「둔(Dune)」의 속편 「둔(Dune): 파트 2」입니다.

먼저 1편 「둔」의 줄거리를 짚고 넘어갑니다.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에는 '스파이스'라는 희귀하고 값비싼 물질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귀족 가문은 물론 황제까지 이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주인공 폴의 가문은 황제의 명으로 아라키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장 뒤통수를 맞으며 사실상 전멸합니다. 폴은 행성의 사막 민족인 프레멘 무리로 망명합니다.

「둔(Dune): 파트 2」는 본격적으로 영웅 서사를 다룹니다. 망명한 폴은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원주민 사회에 적응하고 인정받습니다. 폴은 그가 메시아라는 예언에 힘입어 행성 전체를 규합합니다. 이후, 황제에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 극장의 존재 이유를 다루는 영화가 자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개봉한 「탐건: 매버릭」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 톰 크루즈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액션을 보여주었죠. 베테랑 조종사의 이야기이지만, 영화 자체를 은유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촬영을 고집하며 최대한의 리얼리티를 이끌어냈으며,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볼 때 최적화된 이미지와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낡은 F-14를 두고 말하는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라는 대사는 극장이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 극장의 ‘끝판왕’은 역시 아이맥스입니다. 아이맥스(IMAX)는 거대한 스크린과 짝 찬 화면비율, 높은 해상도를 특징으로 하는 극장 포맷이자 특별 상영관을 말합니다. 스크린이 거대하기에 담을 수 있는 이미지도 거대합니다. 자연환경을 담으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비추며 압도감을 전달할 수도 있죠. 극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경험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둔(Dune): 파트 2」는 그 거대한 스크린을 클로즈업으로도 채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담을 것만 같은 카메라로, 주인공의 얼굴만을 담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차 편집까지 합니다. 탄성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모래사막을 비춘 바로 다음 주인공의 얼굴을, 셀 수 없이 운집한 군중이 있는 광장을 비춘 바로 다음 주인공의 얼굴을 배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촬영 방식이 클로즈업인데, 교차 편집까지 더하며 관객의 시선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눈입니다. 눈은 1편에서부터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아라키스 행성 사막 지역 원주민인 프레멘의 눈은 새파랗습니다. 사막 모래에 섞여 있는 스파이스 때문이죠. 주인공 폴은 본래 외부인이었지만 망명 후 프레멘의 일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파이스에 노출되어 눈이 점점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변한 눈은 프레멘과 유대감을 나누는 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감은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된 이상, 전쟁은 필연적이고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랗게 변한 눈은 폴의 딜레마와 내적 갈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커다란 스크린의 이점을 100% 활용합니다. 때로는 넓게 때로는 좁게 장면을 보여주며 시각적 즐거움과 생각할 만한 지점을 제시합니다. 영화를 TV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극장에서만큼 온전하게 감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둔(Dune): 파트 2」는 극장을 찾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아깝지 않은 영화입니다. 비단 이번 영화만이 아니라, 여전히 극장이 유효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극장은 영화의 안과 영화의 밖에서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둔(Dune): 파트 2」

생각하는 그림

함께하는 시간의 힘

1929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나라의 공장들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4일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에 맞춰야 했습니다. 시민마다 쉬는 날 역시 달랐습니다. 노동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다섯 개 집단이 서로 돌아가며 쉬게 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모든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조치라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모두의 휴일이 제각각이라 사람들이 덜 몰리면서, 사람들은 더욱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련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격렬하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소련 관영 신문 중 하나였던 「프라우다」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일터로 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데, 저 혼자 휴일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도 교대로 근무하느라 친구도 없습니다. 나 홀로 휴일을 보내야 한다면, 이건 결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영국의 칼럼니스트 올리버 버크먼(Oliver Burkman)에 따르면 우리의 시간은 네트워크 자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나만 갖고 있을 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시간이 있어야 서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여유가 되레 외로움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버크먼은 사람들은 함께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장군들은 병사들이 홀로 걷지 않고 함께 행군할 때, 더 먼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함께 군가를 부르고, 함께 발맞춰 걸으면서 병사들은 서로 몸의 리듬을 맞춰갑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병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단합하며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시간에도 우리는 쉽게 연결될 수 있죠. 개개인은 자유가 주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문득 외로움과 불안감이 찾아오는 모순에 대해 버크먼은 우리에게 정작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모여 함께 일과를 꾸리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의 힘을 간과하지 마세요. 바쁜 와중에도 얼굴을 맞대고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본 교안은 중동고등학교 교사 안광복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우리 술 가이드

감홍로(甘紅露)

최근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나의 흐름은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도수가 낮은 술을 선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취하는’ 문화에서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위를 보면 분위기를 즐기고, 음식과의 궁합을 즐기며, 술 자체의 향과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명절에나 마시던 ‘아저씨’ 술로 여겨지던 전통주에도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젊어지고 있고, 전통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젊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매장도 점점 늘고 있고 2017년 400억 원이던 전통주 시장이 2022년 1,629억 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성장했다. 심지어 박재범, 성시경 등 연예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술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주를 마시는 방법은 별로 변화가 없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음용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모든 술은 가장 맛있는 온도, 글라스, 안주가 있고, 마시는 방법도 원액(Neat), 물(Water), 얼음(Ice), 칵테일(Cocktail)이나 하이볼(Highball)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오늘 만나 볼 첫 번째 우리 술은 감홍로(甘紅露)이다. 감홍로의 감(甘)은 단맛, 홍(紅)은 붉은색, 로(露)는 증류된 술이 향아리 속에 이슬처럼 맺힌다는 의미이다. 감홍로는 고려 때 몽골에서 유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로서, 유득공(1749-1807)의 『경도잡지』, 최남선(1890-1957)의 『조선상식문답』에 우리나라 3대 명주 중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 순조 때 서유구(1764-1845)가 지은 『임원경제집요지』와 현종 때 홍석모(1781-1857)가 지은 세시 풍속을 담은 책인 『동국세시기』에도 감홍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별주부전』, 『춘향전』, 『장길산』 등 문학 작품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오지로 된 병에도 감홍로 같은 좋은 술이 담겨있다는 의미의 속담인 ‘질병에



감홍로

도 감홍로'라는 말이 있으며, 그 속뜻은 겉모양은 보잘 것 없으나 속은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감홍로는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감홍로는 조와 쌀로 만든 술에 7가지 약재(용안육, 계피, 진피, 정향, 생강, 감초, 지초)를 넣어 침출한 후 숙성시킨 것으로 본래 약리작용으로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수가 40도로 높지만 약재의 향이 어우러져 향이 독특하고 마시기에도 부드럽고 가슴에서 시원하게 뚫고 지나가는 강렬함이 있으며 따스한 기운이 몸에 퍼지는 술이다. 현재 전통식품 명인 제43호인 이기숙 명인이 경기도 파주에서 만들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레시피 제공 : 전재구

- 글라스 : 칵테일 글라스(Cocktail Glass)
- 재료 : 감홍로 45mL, 오미자청 20mL, 레몬즙 10mL, 샤르트뢰즈 1tsp(5mL)
- 기법 : 셰이크(Shake)
- 가니쉬 : 오렌지 필 트위스트(A Twist of Orange peel)



홍로(紅露)

레시피 제공 : 조영진

- 글라스 : 하이볼 글라스(Highball Glass)
- 재료 : 감홍로 30mL, 수정과 30mL, 토닉워터 Fill
- 기법 : 빌드(Build)
- 가니쉬 : 시나몬 스틱(Cinnamon Stick) & 팔각(Star Anise)



대추 올드패션드

레시피 제공 : 서정현

- 글라스 : 올드패션드 글라스(Old-fashioned Glass)
- 재료 : 감홍로 50mL, 대추 시럽 10mL, Angostrua Bitters 3 Dashes, Angostura Orange Bitters 1 Dash
- 기법 : 빌드(Build)
- 가니쉬 : 보은대추칩



전재구

한국음료강사협회의 회장, 루이스 바 총괄대표, 한국술연구회 회장, 대한민국식품명인주 홍보대사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CES 2024 돌아보기 II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전통기업”

CES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만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들은 첨단 기업이 아닌 전통의 제조·유통 기업들이었다. 이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했는지에 많은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L'Oréal)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뷰티 테크” 기업을 천명한 로레알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으로 잘 알려진 로레알은 CES 역사상 최초로 화장품 기업 CEO가 기조연설을 하며 화장품 산업과 혁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구현될 뷰티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전망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킨 것은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뷰티 추천 애플리케이션인 “뷰티 지니어스”였다.



CES에서 기조연설을 진행 중인 로레알 CEO 니콜라스 히에로니무스

이날 로레알의 CEO인 니콜라스 히에로니무스가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사용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앱에게 이야기한다.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이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와서 피부가 까칠한 것에 대한 대처법을 앱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뷰티 지니어스는 피부 상태 확인을 위해 얼굴을 스마트폰에 대라고 이야기한다.

피부의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뷰티 지니어스 AI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바르는 법까지 순서대로 알려준다.

위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치 앱이 아닌 화장품 전문가와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스마트폰에 얼굴을 대고 물어보거나 상담을 할 뿐이지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10만 건 이상의 사용자 피부 데이터와 논문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들어갔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기 위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10가지를 조합한 뒤 이미지 인식과 음성인식 API까지 탑재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용자에게는 직관적이지만 뒤에서는 수많은 노력과 데이터, 오랜 노하우가 쌓인 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전통기업인 로레알이 보여준 특징은 무엇일까?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오랜 기간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기술이 빛을 보는데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로레알의 경우가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CES를 통해 로레알이 이제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레알은 10년째 CES에 참여해왔다. 많은 시행착오와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이 그들에게 맞는 데이터와 방법론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그들은 “뷰티 테크”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기업의 ‘본질’을 설정하여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원래 그 회사의 근본과 근원과 관련이 없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로레알은 “뷰티” 회사이고, “뷰티”가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이 필요해졌고, 이를 AI 등의 기술을 통해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AI가 우선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인 “뷰티”가 우선인 것이다.

세 번째, 본인들의 목표를 위해 수많은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는 물론 기술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점이다. 이번 CES 2024 현장에서는 공개된 부스 외에 초대받거나 미리 승인된 비즈니스 연관자나 미디어들에게만 공개하는 비공개 부스들도 많았는데, 운 좋게도 로레알 비공개 부스 출입 허가를 받은 국내 미디어팀과 함께 그곳에 방문할 수 있었다. 비공개 부스에서 로레알과 협력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해당 스타트업 부스에서 로레알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시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며 특정 서비스 업데이트를 위한 문서 하나가 공유될 때도 로레알에서는 이 문서가 실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지 실명으로 알려주고, 혹시 이 문서가 유출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부분에서 로레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문서를 보낸 뒤 자료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레알이 기술제휴와 그에 수반하는 기술 보안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1등 기업이었지만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로레알은 기술의 변곡점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오랜 시간 다음 변화를 준비해 왔고 이것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CES 현장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의 디지털 전환과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큰 호흡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고민해보고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덕진 IT커뮤니케이터. 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이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교수,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책 읽는 공군 이제 다시 손을 맞잡고

상병 우재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적자생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의 이 개념은 흔히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주 진화를 경쟁과 연관시키고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적자생존’ 개념의 ‘적자’는 강한 것이 아니라 다정한 것이다. 즉, 협력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협력적인 것이 ‘적자’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전 지구에 번성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본래 우리 조상은 다른 동물 중에 비해 특별히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 종과 다른 종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친화력’과 ‘공감 능력’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약 8만년 전부터 친화력 선택을 통해 자기 가축화되었다. 인간 중에서 다른 개체에게 친화적이고 협력적인 개체들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아남았다.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되면서 우리 종(種)은 협력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유전적 특질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질의 예시로는 두개골 형태, 눈의 하안 공막 등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현대인의 신체 특징들이 사실은 협력적 진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적 의사소통을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인간 무리 간의 기술 전파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교육을 촉진했고, 이것이 인간 역사의 거둬지는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인간종이 지난 역사 동안 생태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회와 기술 혁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지능도 신체 능력도 아닌 협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경쟁보다는 협력이, 단절보다는 소통이, 분리보다는 접촉이 궁극적으로는 진화와 번영의 길이라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의 의미도 퇴색되는 요즘에는 협력이라는 말이 주위에서 찾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요즘, 협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꿈 같은 소리로까지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협력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추운 날도 끝났고 다시 따뜻한 날이 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아 보자. 혼자 살아남기 보다는 함께 살아나가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이, 벵가사 우즈 지음 | 다들꽃 펴냄

생각이 많은 어느 날

Date . 2024 / 02 / 22

하늘이 마지막 겨울을 쥐어짜듯 갑작스레 내리는 눈. 입춘이 지난 지 꽤 되어 아무도 눈이 내리리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듯한 복잡한 형태로 뒤엉켰고 눈은 어색한 선을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억!”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이들, 또 쓰레기가 내린다며 투덜거리는 이들, 동심으로 돌아가 눈을 굴리며 노는 이들. 꽃나무에 봉우리가 맺히길 기대하던 이들의 탄식과 눈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길바닥에선 찰박거리는 소리로 가득해진 것에 아쉬워하는 이들의 한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모양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떠올리자니, 작년 이맘때에 아버지와 싸우고 멀어진 것이 생각나 떠올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가끔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매번 그 형태가 바뀌어 생각납니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그 생각을 거둡니다.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도 잘만 만났던 징그럽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주체할 여유도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겠지만, 아까부터 뭔가 잊은듯한,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내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신지요?’ 혹시 술을 마신거냐는 어머니의 대답에 서로 깔깔 웃어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친구들과와는 다른 느낌. 작은 도서관의 대표이신 어머니는 오늘도 바쁘신 듯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잘 지내는지, 생활은 어떤지를 물어보셔서 ‘이젠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답하니, 전문하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어머니의 말에 실소를 하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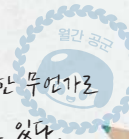
세찬 눈을 맞고 집에 도착했을 때, 눈 앞에 펼쳐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주 뜨겁고 붉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듯한 시원함.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인생은 뜻이 깊어집니다. 내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봄의 문턱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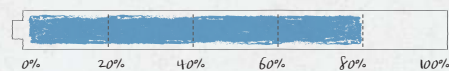
오늘의 감정



MEMO 지금의 문제는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풀릴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만족도



토닥토닥 그곳의 하루는 여전히 길까

공군 장교로 임관하기 전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중에도 제2의 생명인 총기만큼이나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 입대하는 날 받은 노랑고 가느다란 볼펜 세 자루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PD수첩 하나. 부족한 필력에도 뭐 그리 필기구에 욕심이 났던지, 펜 하나, 수첩 하나에도 고집이 있던 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장비는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다. 그 이질감을 이겨내고자 엄지와 검지에 온 힘을 모아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눌러 담았다. 그 첫 장에 써 내려간 문장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선명하다. ‘하루가 얼마나 길까’. 월간 『공군』 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그 한 문장을 잠시 꺼내 볼까 한다.

훈련받으며 유독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다. 입대 전 매일 술과 함께 보낸 나는 오전에는, 아니 심지어 해가 기울 무렵까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서야 다시 약속을 가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박차고 화장실로 들어가 머리를 만졌다. 그런 나에게, 입대 전 하늘은 얼마간 검은색뿐이었다. 해가 참 짧은 하루들이었다.


그러나 그곳의 하늘은 달랐다. 훈련소의 하늘은 그간 왜 본인을 외면했냐는 듯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꾸짖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쓰는 훈련소였기에 물리적인 여유는 사치일 수 있으나 심리적인 여유를 찾지엔 썩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시간은 가겠지. 긍정적으로 지내보자.’ 잠시뿐이었다. 매일 힘든 순간을 마주했고, 시간도 나의 편이 아니었다. 혼나고, 구르고,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들이 참 싫었다. 아마 다시 돌아가도, 같은 감정이겠지. 그래도 그 순간순간 느껴졌던 감정들, 종종 꺼내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곤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들이었지만, 짧게 추억하기에는 썩 괜찮은 날들이었다.

방독면 착용 실습 평가가 있던 날, 모든 평가가 마무리된 후 교관에게 혼이 났다. 전투복 색이 더럽고 있는 땅의 색과 비슷

해지고서야 교관이 물었다. “뭘 잘못한 것 같나?” 곳곳에서 대답이 터져 나왔다. “동작을 신속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성박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다 맞는 이유였다. 그런데 잠시 정적이 흐르고 교관이 말을 이어나갔다. “아니, 그보다 너희 여기 와서 하늘은 보고 다니냐? 하늘 좀 보라고 시킨 거다.” 순간 욕하는 감정을 다잡고 올려다본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티 없이 맑았다.

힘든 훈련 속에 몸도 마음도 약해져만 갔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계속되었고 실패와 ‘다시’라는 말이 돌아올 때면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다시’라는 말이 무섭고 두려웠을까. 뒤돌아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럴지 모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마주한다. 그리고 이미 실패했다는 생각에 ‘다시’ 실패하면 어찌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한 생각에 괴롭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딱 하루만큼은, 한 번 꺾어봤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보는 건 어떨까.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오늘 하루가 조금은 힘들었던 심포일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마침표일지, 끝나지 않는 문장일지 모르지만, 어떤 하루라도 너무 길지 않기를 바란다. 



왕준호 아나운서

공군 학사장교 135기로 임관해 복무했으며, 우연한 계기로 국방TV에 출연해 방송의 매력을 느꼈다. 전역 후 SBS 대전(TJB) 아나운서 등을 거쳐 현재는 연합뉴스 TV 앵커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강기태

gitae7**@gmail.com

저는 최근에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며 월간 『공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나왔던 월간 『공군』을 보다가 전에 나오신 김범수 대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고 싶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그 이야기를 위해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필승!

강예숙

freegi**@naver.com

매화가 활짝 피는 계절이 왔네요. 우리 공군 장병들에게도 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이번 호 기사 중에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를 보니 언젠가 한 번 일반인에게도 공군 박물관이 개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방문해 보고 싶네요. 공군사관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김동석

90w**@hanmail.net

독립운동가이자 항공선각자로 활동하며 헌신한 영웅들의 삶을 엿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3·1운동에 직접 참여한 권기옥, 비행학교를 설립한 노백린, 공군 창설의 주역 최용덕과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던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항공사와 독립운동사에 길이 기억될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것입니다.

AF

월간 『공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 『공군』도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강기태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AF

현재 공군 박물관은 리모델링을 하며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월간 『공군』이 공군 박물관의 문화재를 소개해주는 특집을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AF

힘줘서 준비한 3월호 기획이 김동석님께 감명을 주었다니 편집실에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은 독자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3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3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